

국악 뮤지컬 '허균, 익산에 날아들다'

익산시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

국악 뮤지컬 '허균, 함라에 날아들다' 공연이 오는 6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내 야외 상설공연장에서 18회에 걸쳐 개최된다.

익산시, 전라북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이사장 조봉달) 주관으로 추진되는 '허균, 익산에 날아들다' 공연은 전라북도 관광콘텐츠 도내 5개 시군 대표 브랜드공연에 선정되어 지역 전통예술과 한옥의 전통적 공간 자원을 융합한 야간상설공연으로 추진된다.

'허균, 익산에 날아들다'는 흥길동전의 저자 허균이 함라에서 유배생활을 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그려내는 공연으로 배우들과 관객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관객 친화형 퓨전창작 뮤지컬이다.

이 공연으로 함라지역이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상설공연으로 추진되어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함라지역은 근대화된 부농교육 고택인 만



'허균, 익산에 날아들다' 공연 포스터

석꾼이 살았던 삼부자집과 함열향교가 소재하고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돌담길이 있으며 숙박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함라 한옥체험단지가 있어 상시로 열리는 체험 부스와 쓸쓸한 볼거리가 다양하다.

많은 시민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관람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관람객위생

관리를 위해 공연장소에 대한 사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현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공중보건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조봉달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이사장은 "‘허균, 익산에 날아들다’는 국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뮤지컬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장르의 예술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며 ‘옛 예술가들이 기량을 뽐냈던 예술의 흔이 스며있는 곳으로 매우 뜻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새롭게 단장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함라한옥 체험관에 문화콘텐츠까지 더해져 명품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천년고찰 승림사와 응포 꿈개나루, 성당 교도소 세트장, 용안생태습지공원과 연계해 500만 관광객 유치증심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와 공식홈페이지로 가능하며, 현장 티켓구매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070-4197-966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평선아카데미 '감성충전 팝페라 낭만콘서트'

김제시, 8일 빅맨싱어즈·나리 초청 무료 진행

김제시는 오는 8일 제663회 지평선아카데미에 빅맨싱어즈·나리를 초청해 '감성충전 팝페라 낭만콘서트'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빅맨싱어즈'는 전문 성악가 3인이 모여 만든 팀으로 기존의 웅장하고 섬세한 팝페라를 모든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명 나는 음악 및 춤의 재해석을 통해 재미와 유희함을 더해 주어 새로운 팝페라의 세계로 이끌어 줄 예정이다.

또한 함께 출연하는 '나리'는 프랑스 Val-Maubee 시립음악원의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재원으로 이날 연주되는 곡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빅맨싱어즈와 호흡을 맞춰 Volare, Il mondo, 깊은밤을 날아서, 사랑의 배터리, 풍문으로 들었소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지평선아카데미는 강연장 시설개선공사(6~7월)로 인해 김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며 강연 위주로 진행했던 기존의 틀을 갠 변화를 시도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6월 넷째 주 목요일(22일)은 김민중 농업축산식품부 차관을 초청해 '뱀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이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평선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 참석이 가능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강연 영상이 김제시 홈페이지와 사이버학습센터에 업로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소향자의 무릉도원'

7~12일 서울관 JMA 스페이스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관 JMA 스페이스에서 '소향자의 무릉도원(武陵桃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무릉도원의 사전적 의미는 '이 세상(世上)을 떠난 별천지(別天地)를 이르는 말'로써, 이상향을 뜻한다. 하지만 작가가 표현한 무릉도원은 다른 세상에 있지 않다. 지속적으로 무릉도원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작업을 이어온 그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풍경에서 자신만의 무릉도원을 찾는다.

특히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단순한 일상에서 무릉도원으로 순간이동이 이뤄지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순간은 미술평론가 이묘숙에 의하면 작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유년기의 추억, 향수를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다. 소박한 자연 속의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경험을 모티브 삼아 자신만의 무릉도원을 그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사적인 무릉도원은 주로 풍경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실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작품들은 각각 원경과 근경의 시점으로 그려졌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 요소로 예



술을 이야기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 '소향자의 무릉도원(武陵桃源)'을 통해 관람객들이 저마다의 추억 속에 있는 향수와 그리움들을 꺼내 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향자 작가는 예원예술대학교 디자인 학부 회화과를 졸업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며, 이 밖에 다수의 기획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가는 전국응고미술대전에서 수차례 수상을 가진 바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 부지부장, 전국추향미술대전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국응고미술대전, 전국추향미술대전 등의 초대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향갤러리 대표를 맡고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 기록화 사업 추진

우석대학교 산하협력단 부설 연구소인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역사업에 선정된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는 사업비 1억20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11월 말까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공헌자를 선정, 그들의 생애와 기억에 대한 구술 채록 및 사진·영상 촬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천호준 스포츠기억문화연구소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통해 스포츠 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억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산업디자인학과 13명, 제55회 전북미술대전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는 제55회 전북미술대전에서 특선 4점, 입선 9점의 입상작을 배출했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대거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전라북도미술대전은 한국화부터 디자인까지 총 10개 부문에 1,338점이 출품됐다. 총출품작은 2021년 927점, 2022년 1,128점이 출품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북미술대전 시상식은 지난 5월 3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렸으며, 입상작품 전시는 1부(6월 22일~25일)와 2부(6월 27일~31일)로 나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다.

국립군산대 산업디자인학과는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실무 디자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다수의 대회에서 입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부안읍 주민자치센터 문인화반, 제55회 전북미술대전 다수 수상

부안읍 주민자치센터 문인화반이 2023년 제55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전국 공모전에서 다수의 성과를 올렸다.

주정숙씨가 작품명 '연'을 출품해 우수상을 오세웅씨 외 4명이 특선을 김양석씨 외 8명이 입선하여 매년 전국공모전에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김창조 부안읍장은 "십여 년이 넘는 시간 동

안 수강생들의 인고의 시간이 작품으로 승화되었다"며 붓의 움직임에 따라 사군자의 섬세한 표현력으로 예술의 향유를 목표로 작품활동을 하는 수강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인화반은 2009년 개설한 이래 심사위원 위촉 4명, 초대작가 10여 명을 배출했으며, 이들 작가는 문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